

사회

■ ‘비리 백화점’ 순천 명신대 표정과 후폭풍

# 5천명 등록금 다시 내고 학점따야 할 판

## 학생들 불안... “우리만 표적되나” 교수들 불안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결과 설립자와 전·현직 총장의 비리 및 엉터리 학사관리 실태가 드러난 순천의 명신대학교 캠퍼스는 18일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적막했다.

소수 교직원들만 교과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대학측은 이른바 ‘학점장사’ 피해 학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뚜렷한 사태 수습책을 밝히지 않아 재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지역민들은 말로만 떠돌던 대학측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면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이 폐쇄될 경우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왜 우리만 표적되나”=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교과부 감사 결과를 접한 몇몇 교수들은 오전 일찍부터 학교에 출근해 현재 학교의 상태를 살피느라 바빴다. 감사 결과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꺼렸다.

일부 교수들은 교과부의 감사결과와 언론의 보도가 다소 과장됐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번 감사 전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학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사안들이 오로지 명신대의

일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일 부교수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학점 불인정 피해 클 듯=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인정된 시간제등록생과 재학생 등 5000여명에 대한 학점을 취소하라고 명신대에 통보했다.

대학측은 법정 수업일수 미달에도 출석과 성적을 인정받은 재학생과 시간제등록생에 대해서는 무료 강의를 개설, 재수강 기회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이미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나 자격증을 딴 경우가 많고, 재학생은 이미 한차례 수강한 강의를 또다시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등록금을 다시

내고 학점을 따라 하는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다고 교육계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학위나 자격증 취득의 바탕이었던 학점이 무효화됨으로써 해당 학위와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대학측은 교과부의 감사 결과 대부분을 수용하고 이의신청 기한인 내달 11일까지 관련 준비를 마친 뒤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명신대 관계자는 “대학과 교직원에 대한 감사와 처분은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큰 걱정”이라며 “교과부에 논의해 하루빨리 대학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가혹행위 해병 ‘빨간 명찰’ 떼다

### 병영문화혁신 대토론회

해병대가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병사의 군복에 부착된 ‘빨간 명찰’(붉은 명찰)을 떼어내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등의 고강도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방부와 해병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구타와 폭언, 욕설, 왕따, 기수 열외 등 가혹행위에 가담한 해병대 병사에 대해서는 해병대원을 상징하는 붉은 명찰을 일정기간 떼어내고 해병대사령부 직권으로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로 했다.

해병대에 복무하는 병사가 붉은 명찰을 달지 않으면 사실상 ‘유령 해병’과 마찬가지로 아직 그런 전례를 찾기 어려워 해병대에서는 가장 큰 벌칙으로 꼽힌다.

해병대는 가입소 기간을 포함한 총 7주간의 신병훈련 기간 중 극기훈련

이 끝나는 6주차 금요일에 해병대원임을 상징하는 붉은 명찰을 달아주는 의식을 치르고 있다. 오른쪽 가슴에 붉은 명찰을 달았을 때 비로소 해병대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받게 된다.

또 해병대는 중대급 이하 부대에서 구타와 폭행 등이 적발되면 아예 해당 부대를 해체해 재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병대는 이를 해병대사령관 ‘특별명령’으로 하달하고 전체 장병에게 이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되 만약 위반하면 명령 위반죄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병대는 기수를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이날 오후 3시 김포시 해병 2사단 ‘필승관’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병영문화혁신 대토론회에서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주택가 화재 진화작업** 18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불은 13분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집주인이 외출중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의경에 고소당한 경찰관 직무 고발

### 광주경찰 이례적... 주내 소환

광주지방경찰청이 의무경찰(의경)로부터 고소를 당한 현직 경찰관을 직무 고발했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감찰과는 지난주 같은 부서 의경(21)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광주일보 7월 14일 6면) 북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위와 B경사에 대한 직무 고발장을 수사부서에 접수했다.

경찰이 자체 직원을 상대로 직무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고발장에 명시된 비위 사실이 형

정적 처벌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발장에는 의무경찰 대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직무 책임 전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부서는 이번 주 해당 경찰관을 소환, 고소 건 외에 직무 고발 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입대할 이 의경은 최근 모욕적 언사와 함께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방청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재한 데 이어 지난 8일 해당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옛 목포 신명여상 사태 초래한 사학재단

## 딸은 명신대 총장 아들은 부총장 맡아

■ 신명학원은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명신대는 설립자 겸 총장인 이모 씨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을 도맡았다.

설립자 이씨가 10년간 총장을 지냈고, 이씨의 부인 박모(68·전 전남도의원)씨는 4년 전까지 이사장을 역임했다. 딸과 아들이 현재 총장과 부총장이며, 조카가 전 총무처장을 지냈다.

이 대학은 신설 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난 1992년 학교 운영 비리로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한 ‘신명여상 사태’를 초래했으며 이후 신명학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당시 교육부에 명신대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96년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

## 나원침 (8360) 김종두



## 인건비 부풀려 2300만원 횡령

## 전남 도립국악단 전 상임지휘자 입건

■ 단원 협박 금품 수수도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해 공연료를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전남 도립국악단 전 상임지휘자 김모(47)씨와 사무장 정모(여·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2월가지 정기 및 특별 공연에 따른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차례에 걸쳐 공연료 2300만원을, 정씨는 같은 기간 모두 4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상임지휘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1월부터 1년 사이 단원 4명으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공연하지도 않았는데 공연을 한 것처럼, 공연 참가자 숫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특정 단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연에서 배제, 불이익을 줌으로써 금품 제공을 유도하고 임신한 단원에게는 해촉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여성단원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공연수익금을 무단이체한 의혹을 받아 지난달 7일 해촉됐다.

김씨는 당시 “고의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모독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해촉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보험사기에 강도행각 모의

## 20~30대 5명 구속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하고, 취객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모의한 안모(30)씨와 김모(30)씨 등 20~30대 5명에 대해 사기와 특수강도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안씨가 운전한 차량이 김씨 등 4명이 탄 차량을 일부러 추돌해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쟁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안씨 등 3명은 지난달 10일 밤 10시께 대전시 유성구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기 위해 각목을 들고 술에 취한 범행 대상을 탐색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선후배 사이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유혹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오병윤 민노당 전 사무총장

## 지하철 역서 취객 물품 슬쩍 檢, 구속영장 청구 동부경찰, 40대 입건

노조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오병윤(54) 민노당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의 부장검사)는 18일 수십 개 기업 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역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오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2009년 H제철 등 노조 수십 곳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 4개를 통해 최소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18일 지하철역에서 취객의 소지품을 노린 우모(4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문화전당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던 김모(22)씨의 지갑과 현금, 보청기 등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 들른 우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가방에서 돈이 될만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어머니에 효도” 병원에서 담배 물러주다

## 상나팔

○병원 중환자실에서 어머니에게 담배를 물려주다가 들켜 소란을 피운 40대가 경찰서행.

○1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8)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동구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30여분 동안 목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며칠 전 의사로부터 병세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은 어머니(75)에게 평소 좋아했던 담배를 물려 물렸지만 간호사에게 제지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박씨는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었다”고 울며.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8월 1일